

평양잡지 『농민생활』 문예란과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

전영주**

- 차례 -

1. 들어가며 : 문제제기
2. 『농민생활』 문예란의 성격과 장르 인식
3. 『농민생활』에 반영된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 양상
4. 나오며 : 연구의 의의(意義)와 남은 과제들

[국문 초록]

비문학잡지인 『농민생활』은 근대전환기 ‘농촌문제잡지’이자 ‘농민운동잡지’라 할 수 있다. 본고는 1929년부터 1945년까지 약 17년간 평양에서 발행된 『농민생활』 문예란의 문학작품을 분류, 검토하고 그 가운데에 시문학을 중심으로 메타모포시스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농민생활』은 ‘농민’의 근대적 인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2723)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hanawa88@hanmail.net

식 및 ‘농민생활’ 근대화를 표방하며 농업개량, 농민계몽 등 메타모포시스(탈바꿈) 양상이라 할 만한 서구적인 개념의 ‘농민’ 인식과 ‘농민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농민생활』 문예란에 반영된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 양상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농민생활』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시문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전원문예란>, <문예란>, <시단>, <동시>, <동요>로 구분하여 작품의 세부 장르와 특징을 명기한 후에 해당하는 시작품을 나누어 실고 있다. 이 점은 서구적 장르인식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민생활』에 나타나는 시편들은 농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농촌 근대화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시들이 상당수 포함된다. 신교육을 표방한 서양 선교사에 의해 발간된 평양잡지이기에 『농민생활』에 반영된 농민문학은 메타모포시스(탈바꿈) 그 자체인 것이다. 즉, 『농민생활』에는 1920-30년대에 주로 언급된 무산자 농민계급의 카프계열 농민문학과는 다른 기독교계 농민문학의 양상이 드러난다.

셋째, 『농민생활』에는 민병균, 김조규, 김현승, 장수철 등 전문 시인들의 시가 상당수 보이는데 이들은 후일 개인 시집을 발간하면서 『농민생활』 수록시를 제외했다. 그러므로 『농민생활』 문예란의 시는 발굴의 작품으로써 문학사적인 의의가 높다. 넷째, 시적 표현에 있어서 『농민생활』 문예란의 시작품은 서구적 기독교계 농민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근대적 농촌의 풍경이 묘사되어 나타난다. 이 또한 농촌의 서구화와 근대화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농민시의 메타모포시스(탈바꿈)라 할 만하다.

주제어 : 1930년대, 평양잡지, 농민생활, 메타모포시스, 민병균, 김조규, 김현승

1. 들어가며 : 문제제기

『농민생활』은 문학연구자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29년부터 1945년까지 약 17년간 평양에서 발간된 월간 농민잡지였다. 1928년에 개설된 평양 숭실전문학교 부설 농과(농학강습소)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1929년 6월에 월간지로 창간되었다. 농민계몽, 농업개량을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업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재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대중지향의 ‘농민운동기관잡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농업의 근대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지닌 ‘농촌문제잡지’로 판단된다.¹⁾

『농민생활』과 그 양상이 비슷한 『조선농민』(1925-1930) 및 『농민』(1930-1933)과는 달리 『농민생활』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작품이 수록된 특징을 보인다. 『농민생활』은 양주동의 「농민문학의 개념」(1933.6)을 신는 등 비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문학 장르를 수용하고 있었다. 이 점은 1930년대에 발간된 비문학잡지²⁾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성과 평양이라는 공간성을 고려한다면 『농민생활』 문예란에 반영된 문학의 의의는 더욱 공고하다 할 것이다.

본고는 우선 그간 알려지지 않은 『농민생활』 문예란을 모두 검토하여 소개하고, 지면의 제한으로 시문학에 한하여 그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농민생활』에 수록된 소설과 희곡, 아동문학, 비평에 대한 연구

1) 『농민생활』은 농사에 관한 새로운 지식 및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가축 사육법, 과수 재배법 등 농업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었다. 1929년에 창간하였으나 1931년 농과가 신설되고 농학박사 이훈구가 교수로 부임함으로써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취급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민족과 함께한 숭실 120년』, 숭실대학교출판부, 2017, 158면 참조) 문예란 역시 이후부터 활발해진다.

2) 이 시기에 간행된 비문학잡지 가운데 『신앙세계』, 『신앙생활』, 『신학지남』, 『낙원』, 『카톨릭연구』, 『실교』 등 많은 종교잡지들도 간행되었지만 이들 역시 『농민생활』과는 달리 문학작품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는 차후에 지속되어야 하며 이 논의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³⁾ 앞으로 『농민생활』 문예란의 전체 연구를 통해 『농민생활』에서 엿볼 수 있는 문학적 특색이 온전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은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발행된 『농민생활』의 문예란 가운데 시문학을 검토하여 해방이전에 전개된 평양지역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은 근대시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근대시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서북지역 출신 시인들에 의해 주도된 점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1930년대라는 식민지 시기와, 평양이라는 장소로 대입되는 근대적 시공간에서 『농민생활』이 표방(標榜)한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탈바꿈)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2. 『농민생활』 문예란의 성격과 장르 인식

앞서 언급한 바대로 『농민생활』은 1929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 농과에서 발간하였다. 초창기부터 1936년까지는 숭실 전문학교의 교장인 미국 선교사 윤산온(George Shannon McCune 1878-1941)이 총책임 발행인이었다. 그러나 숭실전문학교의 4대 교장이었던 윤산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장 직에 파면되었고 1936년 미국으로 되돌아갔기에 이후부터 1938년까지는 모의리(E.M.Mowry)가 책임 발행을 맡았다. 1938년 이후로는

3) 『농민생활』은 월간지이므로 그 분량이 실로 만만치 않다. 이번 연구는 『농민생활』 문예란 가운데에 시문학(시, 시조, 시가, 가요, 신시 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했다.

4) 변용 혹은 탈바꿈으로 번역되는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는 개항과 일제침략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르는 말로, 한국근대시의 시적 변화를 모두 포괄한다. 근대이후 문학인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표출하려 한 것은 탈바꿈 즉 메타모포시스의 근대정신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메타모포시스 시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본 연구를 진행했다. 전영주, 『메타모포시스 시학』, 선인출판사, 2019, 7면 참조.

유소(D.N.Lutz)가 출판을 담당했다. 또한 1941년부터는 부편집인이었던 조응천이 ‘개로’로 이름을 바꾸어 『농민생활』의 편집을 이어 받았다.⁵⁾

이처럼 17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농민생활』은 주로 서양선교사에 의해 주도된 만큼 기독교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업개량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에 유익한 실용적인 글들을 주로 실었다. 『농민생활』은 월간지를 표명하였지만 간혹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한 연유로 2개월 통합본이 간행되기도 했다.

주지하듯 창간호부터 1930년 2월까지 약 반년간은 『농민생활』 문예란을 찾아볼 수 없다. 『농민생활』은 1930년 3월(2권3호)호에 이르러 조구만의 <권두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출발로 하고 있는데, 조구만의 시조는 『농민생활』이 보여준 최초의 문학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조는 고된 농사일을 드러내며 하루도 쉴 틈 없는 농촌의 힘든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문예란>이 등장한 것은 1933년 6월호(4주년 특별호)부터인 것이다. 1933년 6월호에는 허복인(시2편)과 최효섭(시3편)의 시가 나란히 실렸으며, 김매산의 소설 「괴계인간」과 양주동의 비평 「농민문학의 개념」이 함께 수록되었다.

문학의 측면으로 볼 때 『농민생활』이 특별한 것은 비문학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문예>와 구분하여 <전원문예란>, <시단>, <소년시단>, <청년시단>, <시조>, <동시> 등 문예란의 특징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잡지인 『농민생활』에 이 같은 구체적인 문학 장르 인식이 개진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하게 여겨진다.

이밖에도 『농민생활』에 전문 시인들의 시가 소개된 점이 주목되며 이

5) 조응천(1895-1979)은 1916년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까지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유학한 후 귀국했다. 조응천은 이 시기에 부편집인으로 지내다가 ‘개로’로 개명하여 『농민생활』의 편집책임을 맡게 된다.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40면 참조.

시기는 1933년 9월호부터라 할 수 있다. 1934년부터는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적극적으로 싣고 있다. 또한 아동문학에 대한 『농민생활』 편집진의 관심은 매우 돋보이는 것이었다. 아동문학을 <동시>, <동요>, <동화>로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란을 통해 자주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생활』은 자매지로 『아이동무』를 따로 간행하는 등 아동문학에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소설의 경우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을 모두 게재했으며, 많은 수는 아니지만 희곡과 비평 장르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특히 한혹구와 한적선의 경우는 시 뿐만 아니라 소설과 수필을 함께 창작하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활동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서 돋보인다.

그러면, 먼저 창간이후부터 1940년까지 『농민생활』 문예란에 반영된 문학 장르와 작품의 이름을 정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1] 『농민생활』 문예란에 발표된 시기별, 장르별 문학작품

간행일 (호)	시문학(시/시조/시가/가요/신시)	아동문학 (동시/동요)	기타 장르 (소설/비평/희곡/수필)
1930년 3월호 (2권3호)	<권두시조> 조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1933년 6월호 (4주년 특별호)	<독자문예> 허복인: 「여름밤」, 「숨어바리어라」 최효섭: 「콩」, 「가구라스곳」, 「무제」		<비평> 양주동: 「농민문학의 개념」 <소설> 김매산: 「괴계인간」

6) 『농민생활』에 수록된 아동문학과 함께 같은 시기에 간행된 어린이잡지 『아이동무』를 묶어 1930년대 평양지역의 아동문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농민생활』 문예란에 반영된 다양한 문학 장르의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1933년 9월호 (5권9호)	<전원문예란> 김원문: 「농민의 힘」 <시조> 해송: 「시조3수」		<소설> 한적선: 「아버지와 아들」
1933년 10월호	한적선: 「깃분과 슬픔」		
1933년 12월호	<전원문예> 김원문: 「타향의 가을밤」 송선결: 「농촌의 가을저녁」		<단편소설> 한수암: 「서분네」
1934년 1월호	<가요> 지주하: 「농민가」(노래) 이도신: 「봄맞는 농군」(가요) <민요> 김영주: 「혼인잔치」 김창엽: 「초동」	<동요> 정창순: 「이놈이 무엇 이요?」 한나무꾼: 「해질 때 나무꾼」 박인혁: 「사다방이」 (동요)	<희곡> 김해산: 「크리스마스 종은 울었 것만」
1934년 2월호			<단편소설> 한기형: 「불 화한 동리」 <장편소설> 한수암: 『천당길』 (1)
1934년 3월호	<전원문예> 송곡(松谷): 「개고리」, 「책임」 야고보(野孤步): 「마음의 파편」 <시조> 이도신(李道璉): 「흙」, 「농민」	<동요> 장기방(張起邦): 「우리집」	<장편소설> 한수암: 『천당길』 (2)
1934년 4월호	<전원문예> 야고보(野孤步): 「우물스길」 <시조> 이도신(李道璉): 「내주먹」	<동요> 김청문: 「부영이」	

1934년 5월호	<전원문예> 김동환:「어머니」 김덕재:「외딴집」 장기방(張起邦):「봄농촌」 김용신:「봄연작(年昨)」	<동요> 창송(蒼松):「병아리」	<장편소설> 한적선:『철민(哲民)』(1)
1934년 6월호	<전원문예> 창송(蒼松):「참다운 용사」 노십생:「우음수제(偶吟數題)」	<동요> 정창순:「개고리」 김원문:「고향생각」	<장편소설> 한수암:『천당길』(3) 한적선:『철민』(2)
1934년 7월호	<전원문예> 양운각:「풀뉘」, 「꽃」, 「잔잔한 수면」 김진홍:「오월단오(五月端午)」	<동요> 장기방:「우리집 송아지」 김윤:「농촌의 새벽」 김철:「농부의 노래」 창송:「흙을 사랑하는 자」	<장편소설> 한적선:『철민』(3)
1934년 8월호	<전원문예> 한혹구:「허미(호미)」 <신시> 민병균:「농민찬보」 <소년시> 최운상:「술밭헤누어」	<동요> 류성:「새쫓는노래」 김원문:「농촌의 석양」 차진하:「개교리우는 밤」	
1934년 9월호	<시> 강승한:「새벽하늘 밑에서」 김윤성:「나는 농부외다」	<동시> 장기방:「우리집 전원 풍경」 윤상:「넛동무」	<장편소설> 한적선:『철민』(5)
1934년 10월호	<전원문예> 강승한:「새벽이여」	<동요> 윤태웅:「산골스길」 <동시> 허동심:「개똥버레」 춘영:「허수아비」 현영해:「가을버레」	<장편소설> 한적선:『철민』(6)

1934년 11월호	<전원문예> 주영섭:「보통별」 <시> 민병균:「나도 가고 싶어라-동절(冬節) 따라 그리운 내고향 산촌의 어린 벗들에게」 <소년시> 박영종:「거리를 떠나다동무여」 <시> 강승한:「황혼의 정경」 장기방:「거두는 가을노래」 박목월:「거리를 떠나는 동모여-최기갑군을 보내면서」	<동요> 근력소년:「농촌소년의 노래」	<장편소설> 한적선:『철민』(7)
1934년 12월호	<전원문예> 김현승:「농민아-어머니의 유언」 창송:「무명수」 <시> 김윤성:「가을풍경」 장기방:「송아지를 팔고」 채득희:「새아침」	<소년시> 김철:「집행패」 <동요> 류경목:「눈오는 아침」 홍고훈:「그리운 엄마」 이영만:「무배채」 K생(生):「꼬부랑길」 한철:「농군의 노래」	<장편소설> 한적선:『철민』(8)
1935년 1월호	<전원문예> 민병균:「밤,북풍이 물러가는 남방을 우르러-삼남, 관서 수풍재난 동포들에게」 양운각:「밤의 산길」 강승한:「무제」 장기방:「농촌의 황혼」		<장편소설> 한적선:『철민』(9)
1935년 2월호	<전원문예> 민병균:「봄」 홍고훈:「봄마지노래」 양덕률:「새해를 맞는 농촌의 아침」		

1935년 3월호	<시가> 김조규:「삼춘송(三春頌)」 양운각:「눈보라치는 나룻가의 밤」 정홍필:「농촌에 보내는 단신」		<장편소설> 한적선:『철민』 (11)
1935년 4월호	<전원문예> 한후구:「춘일정사」		
1935년 5월호	<전원문예> 박영중:「여수」 빈농아:「도토리밥」 장기방:「봄바람」 림정섭:「폐허에 빛인 가을의 석양-고목에 색인 노래」 창송:「새로운 각오」 박목월:「여수」		<장편소설> 한적선:『철민』 (12)
1935년 6월호	민병균:「여름 황혼의 산상」		
1935년 7-8월호 (특대호-합 본)	<전원문예> 김덕재:「조고만 희망」 강소천:「감자꽃」 홍고훈:「정든 고향」 한죽송:「농촌은 좋은 곳」 장수철:「포프라 있는 풍경」	<동시> 김요섭:「아가야」 우성익:「종달새」	<단편소설> 한인택: 「모 반 자(謀叛者)」 <장편소설> 한적선:『철민』 (13)
1935년 10월호	<전원문예> 김학모:「청춘의 노래」 정인협:「채소밭의 처녀여」	<동시> 현영해:「농소년행진 곡」 장기방:「물우의 소금 쟁이」 이도신:「개고리」	<장편소설> 한적선:『철민』 (14) 한후구:『사형제』 (1)
1935년 11월호	<전원문예> 현영해:「초가을 아침점경(點 景)」 장수철:「벽촌(僻村)」		<독자수필> 5편

1935년 12월호			<장편소설> 한적선:『철민』 (14) 한후구:『사형제』 (1) <희곡> 「흥륜사(興輪寺) 의 월야(月夜)」
1936년 2월호	장수철:「만가, 「함석 집웅 있 는 풍경」		
1936년 3-4월호 (합본)	<가요> 목일신:「농부의 노래」, 「봄노래」		
1936년 5월호	장수철:「뽕딩 옥상에서」		
1936년 6월호	<전원문예> 백호:「봄은 창조자의 것이다」 김철규:「향촌의 아침」	<동요> 우봉익:「집 잘 보라 고」 우봉익:「기다리는 밤」	<장편소설> 한후구:『사형제』 (2) 박남호:『황야조』 (2) 방인근:『황금-황 야의 백합』(1)
1936년 9월호	강소천:「헛소문-머슴의 노래」		
1937년 6월호	<전원문예> 이도신:「오월단오」 박창식:「농촌의 아침」	<동요> 초향:「왜 닭」	
1937년 7월호	<전원문예> 문원호:「향수」 박도향:「잃은 진주, 찾은 진주」	<동화> 여선초:「황금새」	<장편소설> 방인근:『황금-황 야의 백합』(2)
1937년 9월호	<농촌소년의 노래> 초향:「억세다」		<장작소설> 이진화:「장로의 수기」

1938년 8월호	<시단> 송진옥:「들판의 낙원」 김현산:「흙」 정인혁:「꿈」		
1938년 9월호	<시단> 최경섭:「자연」 운파:「농촌의 아침」 황운섭:「갈래길」		
1938년 10월호	<전원문예> 운용생:「추감(秋感)」 황운섭:「별」		
1938년 11월호	<시> 김응규:「천리평야」		
1939년 5월호	<전원문예> 현영해:「석모(夕暮)」		

위 도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학 장르와 그 양으로도 짐작되듯이, 『농민생활』은 농민의 진보적인 삶을 표방하면서 모든 문학 장르를 적극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원문예란>, <문예란>, <시단>, <동시>, <동요>로 구분하여 문학작품의 장르와 특징을 명기한 후에 해당하는 작품을 나누어 실고 있는 점은 평양잡지 『농민생활』이 서구중심의 장르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농민생활』에 반영된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 양상

그런데 『농민생활』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시문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농민생활』에 시를 발표한 시인을 들면, 강승한, 민병균, 한후구,

김조규, 김현승, 양운한, 장수철, 최경섭, 한죽송, 황운섭 등 후일에 시집을 간행한 전문 시인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⁷⁾ 이러한 점은 전문 문학잡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민잡지에 보인 문인들의 높은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농민생활』에 발표된 시는 이들의 시집에는 거의 누락되어 있다.⁸⁾ 『농민생활』에 발표된 시편들은 1930년대 기독교계 농민잡지를 통해 만난 발군의 가치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공개 자료이므로 『농민생활』 문예란 연구는 그만큼 새로운 시의 발굴로써의 의의도 지닌 것이라 하겠다.

『농민생활』 문예란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시편은 강승한, 민병균, 한후구, 김조규, 김현승, 장수철 등의 시이다. 훗날 이들의 시는 한국근대시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시세계를 지녔기에 그 의의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보여준 농민시에 등장하는 “호미”, “땅”, “흙”과 같은 단어들은 농촌의 풍경과 농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현실중심의 자연관을 드러낸다. 특히 『농민생활』에 반영된 시편들은 농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 농촌 근대화를 모색하는 메타모포시스적인 시적 표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1

빨가우리한 새백 하늘/서녘에 담박이든 별들이 숨으려 할 때/나는 허미

7) 김조규, 민병균은 평양 숭실 시문학의 중심점이었던 시인이다. 평양 숭실의 시문학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정신과 혼을 살리려는 저항시, 근대적 미의식의 발견과 비판적 성찰을 보여준 모더니즘 경향의 시, 전통적 율격과 미감을 계승한 전통적 서정시, 남성적 목소리로 문단에 청년정신의 맥박을 흐르게 한 민족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대시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강경희, 「숭실의 시인들」, 『한국문학과 예술』3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09. 56면 참조.

8) 『농민생활』에 시를 발표한 시인들이 간행한 시집은 다음과 같다. 강승한, 『한나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민병균, 『조선의 노래』,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김조규, 『동방』, 조선농민사, 1947. 양운한, 『황금벌에 서서』, 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64. 장수철, 『서정부락』, 신조문화사, 1960. 최경섭, 『풍경』, 한성도서, 1938. 한죽송, 『방아찢는 처녀』, 한성도서, 1939. 황운섭, 『규포시초』, 동서문화사, 1954

를 들고 뜰밖으로 나가노라//선명한 하늘은 넓고/안개 지낸 바람은 부드러워
노라/山기슭에 즐편이 누운 논과 밭...../이슬안긴 논두렁우에 호박 꽃...../
꼬불락 꼬불락 좁은 길가으로/나는 허미들고 뜰밖에 나가노라//

2.

신농씨(神農氏)때에 만들은 허미-태고(太古)적 사물(查物)-이 허미 한
자루/반만년(半萬年)내 조상(祖上)이 지니고 단긴/오, 이 허미한자루를 가
졌노라//파고 또파고 파고 파고...../나는 허미 한자루를 가졌노라/돌채고
또 돌채고 돌채 돌채...../이 땅의 기름도 거반 진(盡)하였노라//

3.

손바닥만한 땅덩이/반만년(半萬年)이나 돌채 었노라/니마에서 떨어진
땀...../오, 심장에서 쏟아진 한숨.....//

4

지나간날의 조상(祖上)생각...../한번 나는 땅을 한없이 팠노라/아들공부
식히고 딸식집보낼생각...../나는 또한번 땅을 팠노라//한숨 한번에/땅한번
파고...../귀찬락 웃음 한번에/또한번 파노라//

5

오, 그러나 저 태양(太陽)!/동산(東山)바위우를 올라타고 넓노라!/태양
(太陽) 태양(太陽) 그대는 위대(偉大)한 존재(存在)여!/세상(世上)이 다 변
(變)한다 한들/그대의 뜨거운 정열(情熱)은 변(變)함업노라//

오, 부어라! 태양(太陽)아/네 뜨거운 정열(情熱)의 빛을!/그대와 내가 함
계만 있다면/내 가슴은 희망(希望)과 열(熱)로 차나니/오, 그대는 삶의 상징

(象徵)이노라//

6.

태양(太陽) 태양(太陽) 태양(太陽)이여...../나는 힘있게 땅을 파노라!/반
만년(半萬年)이나 날카로워진 이허미/나는 태양(太陽)을 가슴에 압박안고/
땅을 들채고 불채고...../파고 파고 또파고 파노라//

- 한훤구, 「허미(철)」(1934.8) 전문

먼저 한훤구의 시 「호미」는 농촌의 가치와 농민의 역할을 주목한 시
이다. 근대 개념의 농촌은 이제 더 이상 그저 농사를 위한 단순한 의미의
‘땅’만은 아니다. 화자는 “힘있게 땅을 파”는 행위를 ‘호미(철)’의 단단함
에 신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 “태양 태양 태양”을 연거푸 호명하는 확
신에 찬 열정을 드러내며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농민의 희망으로 변
화시킨다. 농민에게 농토는 흔히 “아들공부시키고 딸식집보내”는 “땅”이
지만 이를 넘어서서 농민의 “삶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훤구는 “허미 한 자루”를 “신농씨(神農氏)” 이후부터 “태고(太古)적
사물”이 된 “허미”와 한 몸인 절대적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매개물
로 삼고 있다. 이른바 “나는 허미를 가졌노라” 자부하는 근대적 농민의
자세는 “태양”의 “정열”을 품에 안은 근대적 도구로서의 “허미(철)”를 지
니고 이를 “반만년(半萬年)”이나 물려받아 지켜온 ‘농민’인 것이다.

위 시는 씨를 뿌려 밭을 일구어 생계를 꾸리는 전통적 개념의 ‘농부’와
는 다른 근대적 개념의 ‘농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김현
승은 농민의 삶을 다음과 같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지금 너이들의 태양(太陽)과 홍수(洪水)와 싸우던 고전장(古戰場)에는
동지달의 바람 찬 눈이 거칠게 덮여 있다/ 그러나 아들이 저 치운 따 속에

너이들이 묻어 놓은 보리의 생명이 었디려 건강한 새 봄을 기다리고 있다
함을 잊지 말어라/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 치운 바람 속에 너이 어머니는 영
원히 같든지도 모른다-/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하지, 많은 잘못으로 일생을
덮은 늙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만 살아져야하지-/ 아아 농민(農民)아 늙은
어미의 주검을 파묻은 땅 속에서 새싹이 피어날 때 저 봄 우에서 얼었던 땅
덩이가 녹아 흐를 때/ 너는 끓는 피 튼튼한 팔 안에 광이를 들고 천리(千里)
를 내어다 보아야 한다./오오 농민아 나의 건강한 맞아들아/ 어머니는 푸
르른 대벽(大辟)을 너에게 맡기고 간다.

- 김현승 「농민아-어머니의 유언」(1934.12) 중에서

김현승의 「농민아-어머니의 유언」에서는 “나의 건강한 맞아들”로 상
징되는 “농민”의 존재를 절대 자연인 “태양”에 비유하면서 “홍수와 싸우
던” 뜨겁게 “끓는 피, 튼튼한 팔 안에 광이를 든” 모습의 농민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다만 늙은 어미의 유언에 의해 환기된 어머니의 삶(전통)과는
대조적이기에 젊은 농민인 “너이들의” 농토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푸르
른 대벽(大辟)”으로 상기되는 농촌을 농민인 아들에게 맡기고 기대하는
감정을 드러내 보인다.

그것은 “많은 잘못으로 일생을 덮은 늙은 사람들”(전통)이 “보리의 생
명을 었디려 건강한 새 봄을 기다리”(근대)는 비장한 심정으로 “맞아들”
에 다름 아닌 젊은 “농민”에게 고하는 당부의 말이기도 하다. 이제 늙은
“어미의 주검”은 “땅 속에서 새싹이 피어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한 것
이라 어머니는 그렇게 한 세계의 종언을 고한다.

위 시를 통해 김현승은 새로운 농민의 삶 즉 변화(메타모포시스)된 농
촌의 삶을 부각하고 있다.

농민(農民)-/그는 소박(素朴)하고도 숭고(崇高)한 철현(哲賢)이다/그는

복잡한 세기말적(世紀末的) 학문(學問)이 없으며/단아한 그의 머리에는 차
돌같이 딱딱한/생각의 뭉치가 하나 재(在)하얏잇서/아침 저녁 동천(東天)
서천(西天)에 그의 심사(沈事)의 날개를 편다//농민(農民)-/그는 만고(萬
古)의 용사(勇士)이다/그는 펄펄 끓는 염열(炎熱)과 깎는듯한 냉한(冷寒)
을/벌거벗은몸으로 능(能)이/ 사시(四時) 장천(長天) 노고(勞苦)와 싸우되/
자리에 누어 알는 소리 한번 내여본 적이 두물다//농민(農民)-/그는 현명
(賢明)한 종교가(宗教家)이다//

- 민병균, 「농민찬보(農民讚譜)」(1934.8) 중에서

민병균은 농민을 “숭고(崇高)한 철현(哲賢)”, “만고(萬古)의 용사(勇
士)”, “현명(賢明)한 종교가(宗教家)”로 명명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민
병균의 「농민찬보(農民讚譜)」는 이상적인 농민상을 그려낸다. 민병균은
이른바 농민이야말로 “복잡한 세기말적(世紀末的) 학문(學問)이 없”는
“철현(哲賢)”이며 “머리에는 차돌같이 딱딱한/생각의 뭉치”를 지닌 “용
사(勇士)”이자 “노고(勞苦)와 싸우되/자리에 누어 알는 소리 한번 내여본
적이” 드문 “종교가(宗教家)”이기도 함을 역설하고 있다.

철학자와 용맹한 군인, 종교가와 비견되는 참다운 근대적인 농민상은
농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농촌)공동체가 지향하는 근대적 농민
에 대한 이상적 평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위 시는 19세기말의 농민과는 분
명 달라져야만 하는 20세기 농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땅이 쫓이 변색하면은 지각을 깨트리고요/호미를들미어 오곡을자라나
게하고/낮을휘두름이여 생명의얼에들거루나니/이세상에 대담하고 강한자
는 농민 뿐이다//흐르는물을 대여서는 논을만들고/나무그루와 가시녕쿨을
파내여서는 밭을 만드니/초록금수곤충어벌 삼라만상이느것마나어/농민의
손에정복을 당치아니하는것이업도다//농민은이러케 자연을정복하고/모든

것을 리용하는대답하고강한 힘이있지요/농민의창조자힘으로 우러나오는
것이/드디어 예술 문학 과학들이 생겨젓답니다//.

- 김원문, 「농민의 힘」(1933.9) 전문

김원문은 위 시에서 “농민”은 창조자의 힘을 지닌 자이기에 절대적 상징태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연을 정복”하고 “삼라만상”을 “이용”하는 “농민의 힘”이 호미를 들어 오곡을 자라게 하고 낫을 휘둘러 생명의 얼을 자라나게 하는 일군(一群)임을 드러내며, 흐르는 물을 고여 논을 만들고 가시 덩쿨을 파내어 밭을 만드는 무릇 창조자와도 같은 숭고한 힘을 지닌자가 농민임을 강조한다. “대답하고도 강한 힘”을 가진 농민의 존재는 창조(創造)의 발군을 발휘하여 “드디어”는 “예술과 문학, 과학”을 창조해 내는 원천을 이끌어낸다. 농민에 의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술이 생성된다는 근대적 인식이 싹튼다. 이처럼 김원문의 시는 생명력의 원천을 농민의 역할에서 발견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생활』의 농민시들은 자연(自然) 가운데에도 생동하는 ‘봄’을 주목하고 있는데, ‘농민’을 상상하고 전유하는 방식은 ‘봄’이 내포하는 자연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뽕야케 하늘거리는 이른 봄의 하늘-/남전(南田) 골짜기에 봄여신(女神)의
얇은 채찍이 움죽인다//삼동(三冬)-생(生)이없고 푸르룩한 기나긴 겨울
을/절정(節情)에 피서린 가슴만을 쥐여뜯든 이겨레우에/봄의 아름다운 꽃
수레가 동풍(東風)을 타고 굴러온다/돌돌돌곤곤에 사모친 바퀴소리-/잠깨
인 시냇물도 얼음장 깨트리며 졸졸졸 춤추며나리고/종다리 구르ᄇᄇ 속높
이 삼춘송(三春頌)의 보표(譜表)를 그리며휘도니/가설(假設)의 백설(白雪)
이여 고요히 고요히 봄수레를 굴리며가라//벨릴리 벨릴리 저 언덕 시냇가
에서 퍼지어 달리는 어린 것들의 피리소리/허무러진 담저우에 나라니앉어

목놓아부르는 내어린 겨레들의 혈벗은 노래-/((야야 네가 누구냐 아들이나
네가 누구의 자식이냐/네 아버가 명랑(明朗)한 이 봄을 등지고 살지 않느냐/
네어미가 따스한 봄빛을 잃고 울지않느냐//허나 그피리소리 마디마디
넘쳐뛰는 약동(躍動)에 맑은 곡조(曲調)물줄기에 그리네/목쉬인 그 노래소리
가락 가락 사나희의 엄동에 핏물을 떠러뜨리네//오냐, 실버들 휘여잡고
뼈마디 저린 지난날의 추억(追憶)에 뒤무리하지말자/봄하늘 우러러 슬픈
노래 부르기를 끝이자/보라, 빙빙빙돌아가는 이끼긴 물방아 우으로/비단
안개 깔린 끝없이 넓은 행길우으로/돌돌돌 봄의 아름다운 꽃수레가 굴러
온다, 힘차게 굴러온다//

- 김조규, 「삼춘송(三春頌)」(1935.3) 전문

“봄”에 대한 동경과 찬사는 ‘농민’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어지거나, 봄을 만끽하는 자세를 더욱 겸허히 하라는 자연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드러난다. 위 시에서 김조규는 “봄의 푸르름”은 “기나긴 겨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봄의 아름다운 꽃수레”는 “뼈마디 저린 지난날”의 수고가 있었기에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노래소리 가락”은 “따스한 봄빛을 잃고 우는”, “어미들”의 울음소리는 아닌지 돌아보라 충고한다.

이처럼 약동하는 봄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분출하는 적합한 자연이지만, 여기에는 지난날 ‘농민’의 호미와 팽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세계이다. 김조규는 농민의 생활에서 계절에 대한 인식 특히 봄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민생활』 문예란은 농촌 청년의 정신과 근대적 농촌을 이루려는 자의 의지를 표출한 시편들이 다수 등장한다.

①

아죽도 옷한벌없어 헐벗고 하루한때 끼니를에우며 굶주리고있는/그대들의 참담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꺾가에서 멀-리 살아지기도전에/묘지를 북풍(北風)이 어느듯 싸-늘한 마성(魔性)의 한천(寒天)을 높이 가로건너서/사랑하는 나의 겨레들이여, 집도없고 입을 것도없는 그대들의 신세이여 늘/홍수와 태풍에 시달리고는 그대들의 푸르락하게 맥빠진 벌거벗은 몸둥이들이/다시금 처음으로인하여 아픈상처에 날카로운 칼날을 꽃음갈졌구나//

- 민병균, 「밤, 북풍(北風)이 물려가는 남방(南方)을 우러러
- 삼남, 관서 수풍재난 동초들에게」(1935.1) 중에서

②

부드럽고, 아름다운 봄...../봄은 오는데/왜, 고향(故鄉)을 떠나 가나?/젊은 청춘(靑春)의 남녀(男女)들은/왜, 이국(異國)으로 떠나 가나?/봄은 청춘(靑春)에게 아름답고/봄은 삶의 희망(希望)과, 청춘(靑春)의 정열(情熱)을/가득이 갖어 오는 시절(時節)...../그러나 이 환희(歡喜)의 반면(反面)에/더욱 더 쓸아림, 그것도 봄이 갖어왔구나!//청춘(靑春)아! 봄을 이야기 하라!/정열(情熱)의 봄...../희망(希望)의 봄...../청춘(靑春)의 환희(歡喜)를 노래 함도 좋고/청춘(靑春)의 애수(哀愁)를 울어봄도 좋다.//한암의 씨가 땅 속에 파무치여/어둠과 동경(東經)속에 몇날을 보내고/뽕족한 생명의 끝이 지심(地心)을 뚫고 나올 때/나는 그 파릿, 파릿한 생명(生命)을/나는 그 생(生)의 기적(奇蹟)을 보노라!//부드럽고, 아름다운 봄...../희망(希望)의 봄은 오는데/왜, 고향(故鄉)을 떠나 가나?/젊은 청춘(靑春)의 남녀(男女)들은/왜, 이국(異國)으로 떠나 가나?//

- 한혹구, 「춘일정사(春日靜思)」(1935.4) 전문

인용시①처럼 농촌 재해를 염려하며 복구의 의지를 보이거나 인용시②처럼 떠나간 고향 이후에 다시 온 봄을 맞이하고 있는 위 시들은 옛 것 이야말로 쉽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떠나보내듯 이국(異國)의 땅으로 옮겨가는 세계의 이동을 그리고 있다.

위 시에서 “농민”은 “그대”로 대상화되고 “이국(異國)으로 떠나”간 “청춘”으로 호명된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봄”은 오는데, 왜 그들은 “고향을 떠나가는” 것인가. 이질적인 두 감정인 “어둠과 동경”에 대한 적시(指示)가 위 시에는 잘 드러나 있다. 민병균은 “북풍”이 물려 나가는 “남방”으로, 한혹구는 고향을 떠나가는 “이국(異國)”의 낯선 계절을 통해 ‘봄’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흰 언덕에 올라올 때 황혼이 가득 찼다./연담(軟淡)한 안개에 정다운 사색(思索)이 있고/새떼가 화포(畫布)에 색채를 던지었다/벽촌(僻村)!/심밀한 한줄기의 포프라 나무들//낮은 농가의 지붕 벽(壁)창문!/멀리멀리 붉은 색의 정적(靜寂)에 안기는/히고 소박한 한 폭의 그림/이 저녁의 바람은 배암같이 적적하다/밭에서 돌아오는 농부들-조용히 발자취를 옮기며/저녁 밥상을 그리여볼 때//역시 포프라나무들은 조용히 흔들리고/머지하니하여 식후(食後)의/거짓없는 담화(談話)를 고대하는 듯/포프라여!/너희들은 매일 매일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목우(牧牛)가 적막을깨트리는 울음소리를 들으며/나는 담배를물은채 바라보고 있다//

- 장수철, 「포프라 있는 풍경(風景)」(1935.7-8) 전문

“포프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나무에 비껴있는 이국적인 나무 이름에 다름 아니다. 위 시에서 포프라 나무에는 “정다운 사색”이 있고 “거짓 없는 담화”가 함께 머문다. “밭에서 돌아오는 농부들”이 “낮은 농가”의 “지붕 벽 창문”에 안기는 “정적”을 바라보며 “배암 같이 적적하다”고 인식하

는 사유의 저변에 위로(慰勞)를 안겨주듯 이국적인 그림 속 나무 같은 포프라가 서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포프라 있는 풍경(風景)」의 마지막 구절인 “나는 담배를 물은 채 바라보고 있다”를 통해 1930년대 농촌의 변화와 도회적 풍경이 스미는 농촌의 근대적 모습이 시를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며: 연구의 의의(意義)와 남은 과제

『농민생활』은 한국 기독교장로회와 평양 송실전문학교의 주도 아래에 발간되어 약 3000여 개의 장로교회에 배부되었으며, 보급의 효율을 위해 소지역 단위로 지분사(支分社)를 마련하여 만주 용정부터 동래, 창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3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⁹⁾ 있을 만큼 1930년대에 확산되었던 잡지였다. 그러므로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계몽과 농민선교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농민잡지라 할 수 있다.

특히 『농민생활』은 기독교계 잡지 가운데 ‘문예란’이 가장 돋보인 농민잡지였으며, 1930년대 평양 농민문학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사적인 의의가 매우 높다. 2장과 3장에서 검토해본 『농민생활』 문예란의 성격과 특징 및 농민시의 표현방식은 과거 농촌의 모습을 탈바꿈하고자 한,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농민생활』 시문학의 메타모포시스를 주목하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생활』 문예란은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인 평양 송실전문학교 농과에서 농촌의 근대화과 농민의 의식 문제를 개량하기 위해 다양

한 문학 장르를 꾸준히 게재하여 농민의 일상과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업이 개인차원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정서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는 향토공동체의 삶의 문제로 인식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농민생활』이 발간된 1930년대 평양지역의 농민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문학을 통해 표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농민생활』 문예란은 민병균과 김조규, 김현승처럼 송실전문학교 출신의 문인들의 초기 문학활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집에서 제외된 시들이 발굴된 문학사적 의의가 보태진다. 향후에 『농민생활』을 통해 발표된 시를 포함하여 이들의 시세계가 다시 논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양 송실전문학교 출신의 문인 외에도 한적선과 한혹구의 활동을 추가로 주목해보아야 하는데, 한적선과 한혹구의 시세계는 『농민생활』에 발표된 소설작품과 연계하여 그 특징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혹구는 1930년대 하와이에서 간행된 『태평양잡지』의 편집을 맡기도 하는 등 이민문학과와의 관계도 내정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혹구는 평양 지연, 기독교 학연과의 관련 외에도 장소의 확장으로서의 이민(移民)과 문학의 지속성이라는 관계망 안에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한혹구 외에도 최경섭과 장수철, 황운섭, 강소천 등은 평양을 떠나 이남(以南)으로 이동하였으나 이들의 문학적 성과는 아동문학으로 전도한 특징을 보인다. 농민문학이 아동문학을 중시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의 전회(轉回)는 눈여겨보아야 하며, 농민문학이 아동문학과 관계하는 의미망 또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민생활』을 중심으로 농민문학의 비평 분야 또한 고찰되어야 한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주로 언급된 농민문학론은 무산자 농민계급의 카프계열 농민문학이었으며 기독교계 농민문학의 양상과는

9) 노고수, 『한국기독교서지연구』, 예술문화사, 1981, 107면 참조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계에서 다루는 농민문학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중심에 『농민생활』 문예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점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질 평양잡지 『농민생활』 연구의 남은 과제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iterary Columns of the Pyongyang Magazine "Farming Life" and
Metamorphosis in Poetic Literature

Jeon, Young-joo (Soongsil University)

The non-literary magazine, "*Farming Life*" is a magazine for rural affairs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nd a magazine for agrarian movement. This paper reviewed literary works in the "*Farming Life*" literary section published in Pyongyang for 17 years from 1929 to 1945 and considered metamorphosis centered on poetry among them. "*Farming Life*" published around a missionary (professor) in agriculture at Soongsil University, sought to convey practical information to the public on the aspect of metamorphosis, such as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peasant enlightenment, in sufficient terms as a departure from metamorphosis. The characteristics and metamorphosis aspects of poetic literature reflected in the literature section of the "farming life" identifi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rming Life*" gives poetry a lot of space compared to other literary genres. In the case of poetry, the detailed gen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 are specifi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rural literature", "literature", "Sidan", "Dongsi", and "Dongyo". This is a reflection of Western-centered genre. Second, the poems reflected in the "*Farming Life*" include a number of specific poems seeking the daily life of farmers an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As the magazine was published by a

missionary with new education, the significance of peasant literature, which is expressed by “*Farming Life*” is directed toward metamorphosis. The “farming life” reveals a different aspect of Christian peasant literature from those of the proletariat, which was mainly mentioned in the 1920s and 1930s. Third, “*Farming Life*” contains poems by poets such as Min Byung-kyun, Kim Jo-kyu, Kim Hyun-seung and Jang Soo-chul, who excluded poems published in “*Farming Life*” while publishing a personal collection of poems. It is possible that the works were excluded due to problems in the movement of residence or securing data, perhaps because the poems published in “*Farming Life*” have been reduced. Many poems as a means of excavation are included and many works of high literary significance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Fourth, in poetic expression, the poem of “*Farming Life*” reveals an unusual rural landscape as seen in Western Christian peasant life. Through the analysis of works, the metamorphosis an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are witnessed.

Key word : 1930's, Pyongyang magazine, *Farming Life*, Metamorphosis, Min Byung-kyun, Kim Jo-kyu, Kim Hyun-seung

[참고문헌]

□ 기본자료

《농민생활》(1929-1945)

□ 단행본

노고수, 『한국기독교서지연구』, 예술문화사, 1981.

송실대학교120년사편찬위원회, 『민족과 함께한 송실120년』, 송실대학교출판부, 2017.

송실의문학간행위원회, 『송실의 문학 1』,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2.

전영주, 『메타모포시스 시학』, 선인출판사, 2019.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경희, 「송실의 시인들」, 『한국문학과 예술』3집, 송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09. 55-85면.

김인섭, 「다형 김현승과 재북시인 김조규의 초기시 대비고찰-송실전문 시절의 종교적 성향과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14권3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9, 115-142면.

박태일, 「1930년대 평양지역문학과 『농민생활』-북한지역문학사연구 4」, 『영주어문』29집, 영주어문학회, 2015, 271-308면.

홍성식, 「생활문학으로서의 농민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3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285-294면.